

“덴소는 금속노조 파괴 위한 청산 철회하라”

한국와이퍼 청산 철회 경기지부 총파업 ... 덴소, 아홉 달 전 합의 ‘고용안정협약’ 짓밟아

금속노조 경기지부 노동자 1천여 명이 한자리에 모여 한국와이퍼 청산을 일방 결정한 일본 덴소 자본을 규탄하고, 2022년 입단협 투쟁 승리를 결의했다.

금속노조 경기지부가 8월 17일 덴스코리아 화성공장 앞에서 ‘한국와이퍼 청산계획 철회를 위한 경기지부 총파업투쟁 결의대회’를 열었다.

지난 7월 7일 한국와이퍼 모기업인 덴소가 노조 경기지부 한국와이퍼분회와 고용안정협약 체결한 지 불과 아홉 달 만에 적자 경영을 핑계로 일방 청산을 발표했다. 일본 자본 덴소는 한국와이퍼 지분 100%를 소유하고 있다.

2021년 10월 금속노조는 덴소, 덴스코리아, 한국와이퍼 자본과 물량확보와 충고용보장을 골자로 하는 고용안정협약을 맺었으나, 덴소는 한국와이퍼 청산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노동조합과 단 한 번도 협의하지 않았다.

고용안정 협약서에 ▲청산, 매각, 공장 이전, 구조조정은 반드시 노동조합과 합의해야 한다. ▲본 합의 일부 내용이라도 불이행했다고 의심되는 경우 회사가 조합원 1인당 1억 원의 금액을 노동조합에 손해배상 한다는 내용이 있지만, 덴소는 이를 무시하고



청산을 밀어붙이고 있다.

윤장혁 금속노조 위원장은 결의대회 격려사를 통해 “대한민국은 투기 자본의 놀이터다. 한국 정부가 해결해야 하는데 뒷집이나 지고 있다”라며 “한국와이퍼 투쟁 승리를 위해서 일본 덴소 자본과 윤석열 정부를 향해 투쟁의 칼날을 겨누어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유상기 금속노조 경기지부 부지부장은 대회사에서 “덴소와 덴스코리아는 한국와이퍼분회와 지난해 10월 충고용보장 협약서에 서명했다”라면서 “덴소는 아홉 달이 지나지 않아 고용안정 합의를 파기하고 조합원들을 벼랑으로 내몰고 있다”라고 분노했다.

유상기 부지부장은 “외투 자본이 한국 사회에서 책임을 다하라는 먹튀 방지법 제·개정 투쟁을 전개하자”라고 호소했다.

최윤미 금속노조 경기지부 시흥안

산지역지회 한국와이퍼 분회장은 투쟁사를 통해 “사측이 오늘 노동조합과 합의 없이 올해 말까지 일한다는 전제로 일종의 위로금인 조기퇴직제도를 발표했다”라면서 “회사의 의도는 희망퇴직자를 중심으로 금속노조를 분열, 와해하려는 것이다”라며 덴소

자본을 강력하게 비판했다.

최윤미 분회장은 지난해 고용안정협약서를 언급하며 “한국와이퍼 청산은 노동조합과 합의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라고 단언했다. 최 분회장은 덴소 자본이 한국와이퍼를 청산하기 위해서 노동조합 파괴 공작을 벌이고 있다고 폭로했다.

최윤미 분회장은 “한국와이퍼 조합원들은 꿈수에 넘어가지 않을뿐더러 꿈수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덴소는 금속노조가 피와 땀으로 만든 고용안정 협약서와 법을 지키라”라며 “한국와이퍼분회는 금속노조 푸른 깃발을 지키고, 외투 자본의 횡포에 당당히 맞서는 2022년 투쟁의 선봉에 서겠다”라고 결의했다.

금속노조 경기지부, 한국와이퍼분회 대표자들이 앞장서고 조합원들이 뒤따르며 덴소 자본에 항의서한을 전달하러 이동했다. 덴소 측은 화성공장을 내보내 항의서한을 전달받았다.

“조국 통일이 평화다. 한미일 전쟁 훈련 중단하라”

8.15 전국노동자대회·자주평화통일대회 열어 ... “윤석열 정부 출범 세 달 만에 심판 직면”

민주노총과 금속노조가 광복 77주년을 맞아 서울 도심에서 집회를 열고, 한·미 전쟁연습 중단과 평화통일 실현을 외쳤다.

민주노총과 금속노조 등은 8월 13일 서울 승례문 앞에서 노동자, 시민 1만여 명과 함께 ‘8.15 전국노동자대회’와 ‘8.15. 자주평화통일대회’에 참가했다. 전국노동자대회 사회는 김은형 민주노총 통일위원장이 맡았다.

지난 8월 6일 출범한 민주노총 23기 중앙통일선봉대의 힘찬 사전공연으로 전국노동자대회를 시작했다. 중앙통일선봉대는 8월 6일부터 8월 13일까지 일주일 동안 전국을 누비며, 노동자·민중의 삶을 지키는 투쟁과 한반도 평화통일을 앞당기기 위한 실천을 벌였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본대회 첫 순서인 대회사에서 “윤석열 정부는 출범 3개월 만에 노동자·민중의 준엄한 심판에 직면해 있다”라며 민생과 평화 양쪽을 모두 놓친 윤석열 정부를 강력하게 비판했다.

양경수 위원장은 다음 주부터 한·미 군사 합동훈련이 있다며 “전쟁 준비 훈련 강행은 언제든 전쟁을 할 수 있다는 의지 표명이다”라며 “한반도를 전쟁의 화염 속으로 몰아넣으려는 윤석열 정부와 미국에 맞서 싸우자”라고 호소했다.

이날 대회에 북측 조선직업총동맹 중앙위원회가 연대사를 보냈다. 직총은 “로동자의 억센 기상과 투지로 미국과 추종 세력의 무분별한 전쟁 대결 광란을 저지 파탄 내자”라



며 노동자들과 민주노총 23기 중앙통일선봉대에 격려를 전달했다.

함재규 민주노총 23기 중앙통일선봉대장은 투쟁사를 통해 “한반도 운명이 풍전등화에 놓였다. 지금 당장 전쟁이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은 정세다”라며 “중앙통일선봉대는 한반도 전쟁 기지화와 자본축적의 정점에 미국과 자본가가 있음을 뼈저리게 확인했다”라며 중앙통일선대의 활동을 보고했다.

함재규 금속노조 부위원장은 “윤

석열 정권이 한·미·일 군사훈련을 하겠다고 한다. 다시 한반도를 일제강점기처럼 만들겠다는 뜻이다. 위장 평화는 평화가 아니다. 조국 통일이 평화다”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전국노동자대회를 마친 노동자들은 같은 자리에서 연 ‘8.15. 자주평화통일대회’까지 참가했다. 대회를 마친 노동자와 시민들은 서울역을 거쳐 용산 대통령실 인근까지 행진하며 서울시민들에게 평화의 메시지를 전달했다.